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자 료 5월 18일(월) 조간 (5.17.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5. 15. / (총 8매)	담당부서	미래질병대비과
과 장	조 우 경	전 화	043-719-7260
담 당 자	유 효 순		043-719-7261
	김 선 미		043-719-7265

올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개시!

- ◇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국민에게 정보 제공
- ◇ '19년 감시체계로 신고 된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자는 1,841명(사망 11명 포함)으로 '18년(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 48명) 대비 59%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세
- ◇ 폭염 시 노인, 어린이, 질환자(심뇌혈관·당뇨병·치매·정신질환 등), 야외작업자 특히 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폭염대비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s://www.cdc.go.kr>)에 정보를 제공한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탈진과 열사병)을 뜻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도 공개하였다.

- 2019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제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841명(사망자 11명 포함)으로,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과 비교하여 59%(2,685명) 감소하였지만,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온열질환자수: ('15년)1,056명→('16년)2,125명→('17년)1,574명→('18년)4,526명→('19년)1,841명

* (열람 및 내려받기 위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 →정책정보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감시체계연보

- 2019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남성, 단순노무종사, 실외, 주로 낮 시간(12-17시)에 많이 발생하였고,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남자가 1,432명(77.8%)으로 여자(409명, 22.2%)보다 많음

② (질환종류별) 열탈진이 1,058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382명(20.7%), 열경련 230명(12.5%), 열실신 132명(7.2%) 순이었다.

③ (연령) 50대가 385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356명(19.3%), 40대 306명(16.6%), 60대 292명(15.9%) 순으로, 40~7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2.7%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자수* 역시 고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10만 명 당 신고 환자 수: (70대) 5.5명, (60대) 4.8명, (80대 이상) 4.7명, (50대) 4.5명

④ (지역) 경기 338명, 경남 203명, 전남 19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 당 발생자수는 도(都)지역(경기도 제외)이 전국 평균(4.5명)보다 높고 시(市)지역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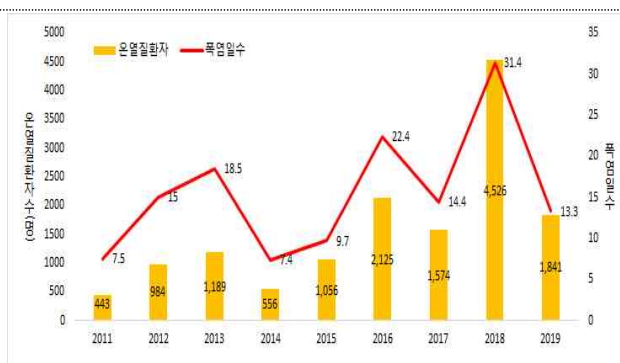
* 인구 10만 명 당 신고환자 수: (전남) 10.1명, (충북) 7.0명, (경북) 6.9명

⑤ (발생장소) 실외가 1,476명(80.2%)으로 실내보다 많은 것으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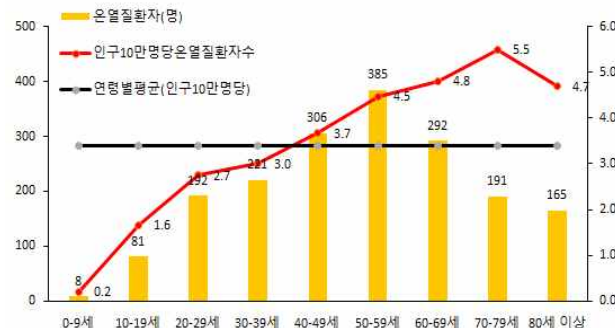
-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596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실외 논/밭 269명(14.6%), 실외 길가 198명(10.8%) 순이었으며,
실내 장소인 집에서 121명(6.6%)으로 나타남

⑥ (발생시간) 낮 시간대(12시~17시)에 환자의 절반 이상(942명, 51%)이 발생
하였고, 15-16시 사이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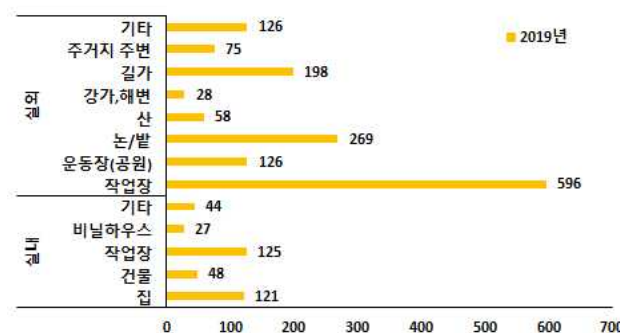
⑦ (직업) 단순노무종사자가 434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이
240명(13%), 농림어업종사자 214명(11.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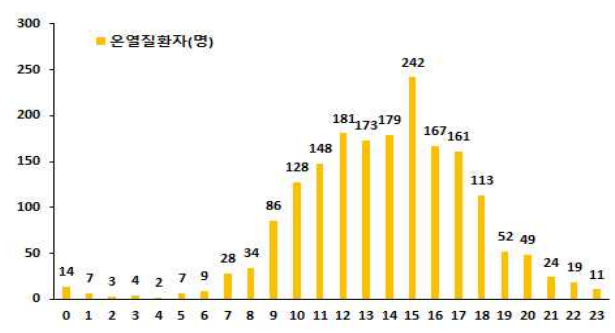
<연도별('11~'19년) 온열질환자>



<연령별 온열질환자('19년)>



<발생장소별 온열질환자('19년)>



<발생시간별 온열질환자('19년)>

○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총 11명으로, 40-50대(7명), 실외(9명)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열사병 추정이 대부분(10명)이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올 여름은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무더위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당뇨병·치매·정신질환 등)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 “더운 날에는 특히 수시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 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할 것”을 당부하였다.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휴식 취하기
-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 <붙임> 1. 폭염대비와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소책자)
2. 온열질환이란? (게시용 홍보물)
3. 건강한 여름나기 (포스터)

붙임 1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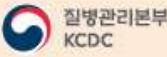
※ 자료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감시체계연보

<p>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한 습관</p> <h2>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h2>  <p>질병관리본부</p>	<h2>Contents</h2> <h3>I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한 이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폭염이란 무엇인가요? 6 02 온열질환은 무엇인가요?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요? 7 03 열사병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8 04 열사병 환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알코올을 뿌려도 되나요? 10 05 열탈진(일사병)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11 06 열사병·일사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13 07 열경련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14 08 열실신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15 09 열부종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16 <h3>II 공통 생활 수칙</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은? 18 11 여름철 음식과 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나요? 19 12 여름철 갈증해소를 위해 술이나 커피, 탄산 등을 마셔도 되나요? 20 13 여름철 소금, 이온음료를 섭취해야 하나요? 21 14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복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22 15 부득이 고온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h3>III 취약계층 주의사항</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6 17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27 18 어린이와 고령자는 왜 위험한가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28 19 심뇌혈관질환자는 왜 위험한가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29 20 저혈압, 고혈압환자는 왜 위험한가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30 21 당뇨병 환자는 왜 위험한가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31 22 신장질환자는 왜 위험한가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32 23 온열질환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있나요? 33 24 온열질환 이외에도 폭염에 영향을 받는 질환이 있나요? 35 	<h2>18 어린이와 고령자는 왜 위험한가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h2> <p>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 면적비도 높아 고온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p>고령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위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p>따라서 어린이와 고령자의 경우, 어지럼증, 호흡곤란, 근육경련, 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보호자 및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기존 질병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질환에 따른 예방법을 준수합니다[19-24번 참조].

붙임 2

온열질환이란? [게시용 홍보물]

※ 자료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감시체계연보



질병관리본부
KCDC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주요 증상

- 고열
- 땀
- 빠른 맥박 및 호흡
- 두통
- 오심
- 피로감
- 근육경련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서 비교적 가벼운 열탈진까지 다양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 질환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팔, 다리 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

어지러움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손,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벗기고 물을 시원하게 함

119 구급대 도착 시 병원으로 이송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벗기고 물을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119 구급대 요청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수분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처치 방법

구분	주요 특성	응급조치 방법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열 (40℃)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을 잃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열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땀을 많이 흘림 (≤40℃)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열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열실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지러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외상소통이 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물은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




매일매일 기상정보 확인


무더운 날 이런 경우 더 위험합니다!




노년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




어린이



논/밭



야외작업장



차 안

붙임 3

건강한 여름나기(포스터)

※ 자료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감시체계연보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물은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

**매일매일 기상정보
확인하기**



무더운 날 이런 경우 더 위험합니다!

누구?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디?



논/밭



야외작업장



차안

위험할땐 **119** (119구급대), 기상정보 확인할땐 **131** (기상청 날씨예보)